

광주시, 구직활동 수당·월세특별 지원 등 청년정책 강화

구직활동 수당, 300만원으로 증액 일자리스태이션 참여대상자 확대 청년일자리공제로 장기근속 유도 월세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 지원과 자립·정착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구직활동수당(드림수당)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일자리스태이션, 청년일자리공제, 청년13통장, 청년월세 특별 지원 등 2025년도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역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위하여 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했다. 청년의 직무적성을 반영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 경험 드림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참여 사업장에서 청년을 1년 더 채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광주시청.

/뉴스시

아울러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자리스태이션의 참여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포함한 직장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근속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도 무료 운영한다.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저학력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수당과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정부의 청년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도입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

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2년 간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지원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청년 13(일+삶)통장은 62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2.5% 중 2%를 최대 4년까지 5억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시 당국은 새롭게 광주지역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하는 광주 3일 살기 프로그램인 '청년, 광주 어때'를 추진하고, 청년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성군

민원 후견인제 운영... 편의 향상

경남 고성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민원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복합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 행정 전문가가 상담과 안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달성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대구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달성군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85.96점을 크게 웃도는 91.63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점수 또한 10.31점이 향상됐다.

/달성(대구)=김준환 기자 kih9@

안동시

보훈수당, 월 3만원 인상

경북 안동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보훈수당을 월 3만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7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혜택을 받는다. 예산은 총 54억원으로 기존 대비 13억원 증액됐다.

이번 조치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13만원, 월납전 참전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23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순천시

지난해 출생아 수 '1452명'

순천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452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천은 6년 연속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명, 2.9% 증가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부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 美 시애틀서 IT 2개사와 '맞손'

MS, IonQ와 업무협약

부산시는 최근 박형준 시장이 미국 시애틀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애틀 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부산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양자 컴퓨팅 전문기업 아이온큐(IonQ)와 '양자과학 기술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부산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에 새롭게 설립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IT 교육, 교육 인증서 및 장학금 수여, 멘토링 및 인

터십 등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또 IonQ의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양자산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IonQ는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공동 협력과제 기획·수행 및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23~2024년 2년 연속 '양자컴퓨터 산업 활용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55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역대학·기업과 협력해 IBM, D-wave 등의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을 만나 기술, 관광, 항공, 물류,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이야기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청도군, 체감 중심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농업, 출산, 복지 등 311억 투입

청도군은 지방소멸 위기와 경제 저성장 추세 속에서 군민 체감 중심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311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업, 출산, 어르신 복지, 대중교통 개선,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농촌왕진버스 운영'에 86억 원을, 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축하 및 장려금'과 '산후 조리비 지원'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어르신 지원 사업으로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 등에 43억 원을,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 광역환승 사업'과 '행복택시·행복버스 사업'에 43억 원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일자리사업'과 '민원주택 사업'에 97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청도사랑상품권 할인 지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도군은 군수 주재 대책 회의를 개최 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및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다.

/청도(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북도는 지난 10일 'K-공공보듬 1호 개소식' 및 'K-공공보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K-공공보듬 1호' 본격 운영

단순 돌봄 넘어 전문기업 위탁 통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행사 지원 민간기업, 대학과 산업 육성 박차

경상북도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아이동반사무실)'를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방형식 ㈜대교에듀캡 대표이사, 정태주 국립안동대학교 총장, 안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공공보듬 1호 개소식' 및 'K-공공보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

포한 경북도는 민간 부문에는 공동체 돌봄을 목표로 한 'K-보듬 6000(온종일 돌봄을 통한 육아천국)'을, 공공부문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K-공공보듬' 모델을 제시하며,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K-공공보듬'은 단순한 돌봄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업 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 체험 행사, 자녀 심리검사 등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K-공공보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민간기업과도 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돌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신안군, 215억 투입해 천일염 시설 현대화

바닥재 개선, 자동화 장비 등 지원

전남 신안군은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위생관리에 총 2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37억 원)과 자동채염기 및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10억 원)을 포함한다. 또한, 천일염의 장기 저장시설(2억 원)과 포장재 지원(4억 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